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김영만
편집인	김영만
주필	김영만
발행처	서울시 중구 동대문로 270-1
전화	449-7811
팩스	449-7812
이메일	odae@naver.com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21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363호 1994년 5월 23일 (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 급인가

1

몸살앓는 외대의 5월

서울캠퍼스의 도시락 판매, 용인 캠퍼스의 농성 등 이번 주도 본교는 학내문제에 의해 대학단과 학생들의 관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20일(금) 새벽 3시까지 진행된 부총장과의 협상으로 11개 요구안에 대해 구두합의를 이루고 그동안 진행돼온 모든 투쟁(이의행위, 단식, 지장성 폐쇄)을 정리했다.

한편 서울캠퍼스는 학생들의 시대인상 철의 요구에 대한 총장의 불가협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도 총학생회의 강경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판권기사 3면〉

○11개 요구사항을 둘러싸고 전봉을 거듭해 온 용인캠퍼스 학내문제에 지난 19일(목) 연이은 진행된 학생대표의 총장, 부총장과의 면담을 통한 구두합의로 일단락 맺어졌다. 그러나 부총장과의 합의가(사학·체코어 4) 군의 장교가 유가정학 2주에 최후통첩 이후 학생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총학생회는 12일(목) 대학당국으로부터 전제된 단식투쟁이 11개 요구안에 대한 수용여부가 없는 것으로 판단, 13일(금) 학생회장실 폐쇄, 17일 비상학생총회 개최, 중앙운영위원회 7인 단식투쟁, 총무처장실 폐쇄, 서울캠퍼스 본관 앞 노상농성 등의 투쟁을 벌여왔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7인을 비롯한 학생 60여명의 서울캠퍼스 본관 앞 노상농성 33일에 되는 날인 19일(목) 오전 10시 학생대표는 미지명 합의를 위한 전제이해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용인캠퍼스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학생들의 11개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 부총장과의 협상, 학생대표와의 협상, 서울캠퍼스의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학내운영위원 40여



용인캠퍼스 학생 60여명은 지난 17일(목)부터 19일(목)까지 서울캠퍼스 본관앞에서 농성 철야 농성을 벌였다.

용인 11개 요구안, 구두 합의로 일단락

서울, 도시락 판매중지...투쟁 방법 전환될 듯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생들은 그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그날 본관 앞 노상농성을 해체하고 용인캠퍼스로 내려가 부총장과의 13시간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부총장, 총무, 학생회장등의 대학당국 대표와 학생대표와의 협상은 오후 7시 상정된 총학생회 비상학내운영위원의 개회시간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학당국의 입장하 따라 학생회의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학내운영위원 40여

이 서명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시 협상에 일했다. 학내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부총장 및 처장들의 의견은 심한 편견상 차이와 갈등을 빚었으나 대부분의 항목들에 대해 학생들의 주장안을 제시해 이에 대한 수락으로 13시간에 걸친 협상은 마무리 됐다.

이런 협상은 △총학생회 중앙본부 및 학생회의 협상내용은 구두합의로 하고 총장의 11개 요구안의 대략적 수용방안을 비롯한 왕산 발전을 위한 의지표현은 학생회장

의 등이 예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음날인 20일(금) 부총장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대표들은 11개 항목에 대해 부총장과 가진 구두합의를 총장에게 약속하기 위해 총장실을 방문했으나 총장의 바쁜 회의 일정으로 22일(일)로 미담이 연기됐다. 이로써 3일부터 진행된 11개 요구안을 중심으로 한 총학생회의 학원지주와 투쟁은 일단락 맺어졌다.

그동안 총학생회는 2차례에 걸친 전의 발을, 총학생회실의 2개월간에 걸친 이의행위 운영등의 투쟁을 벌여왔다.

○약 20일 동안 도시락 판매를 계속해 온 서울캠퍼스는 지난 20일(금)을 끝으로 도시락 판매를 중지하고 대동계가 시작되는 오늘(23)부터는 새로운 투쟁방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지난 11일(수) 진행된 '식대인상'을 위한 결의대회에 대학당국에 큰 압력을 가하지 못한 채 끝난 이후 대학당국의 인상고수 입장이 계속되자 학생들은 지난 19일(목) 총무처장실을 폐쇄하고 집기를 옥외로 끌어내는 강경한 투쟁을 진행했다.

총학생회는 이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비상학내운영위원회를 지난 19일(목) 열었으나 정족수를 다 채우지 못해 부산되고 식대인상 철의 투쟁을 결의하는 지리로 대신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장 오준영(정치·행정 4)은 "학내측이 있는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23일(일) 총장면담을 신청할 것"이라며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이후 학생회장실등의 각 처장실을 폐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대인상 철회를 중심으로 한 총학생회의 학원지주투쟁을 위한 요구안에 대학당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이번주도 학내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부>



역경속에 단련된 청년의 삶

▲ "이런 날 지나가네. 상처받은 세대이긴 이 세상에 나지마지 죽은 세대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세대가 어디있을까?" 살아가는 세대가 상처받은 세대에 새다운 세로 살아남아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는 우화의 한장면이다.

서경주씨의 시 '국화옆에서'의 국화, 겨울에도 푸르스스나루, 노래 '민들레처럼'의 소재 민들레 역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역경과 고난을 상징해 준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삶의 상흔을 딛고 꽃피는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측과 여업, 굴종과 오욕이 있는 곳엔 투쟁이 있고, 투쟁이 있는 곳엔 조치가 있다. 굴욕과 치욕으로 잠란된 한국 현대사는 그야말로 민중의 지주성 회복 여사였다. 그중에서도 청년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4.19 혁명, 6.3한일회담 반대투쟁,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은 군부독재의 폭압정치 속에서 이들의 애국적 투쟁정신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투쟁정신의 결과로 된 현대사, 이의 계승자 한충현은 그 어떤 꽃, 나무, 동물보다 시련 속에서 강인하게 단련된 조직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게 어느 곳에도 이와같이 강고한 학생운동 조직이 없다"는 말에서 증명된다.

▲운동의 위기를 쉽게 얘기하면 된다. 한충현의 위기를 말하면 한충현 살리기 운동을 하는 사회변혁 세력도 종종 보인다. 오도현 문인이 들어서고, 시대가 개방화 되고, 학우들의 열정적 참여와 대동계와 고지원적인 이해와 요구로 인해 이를 따르지 못하는 운동이, 한충현이 위기라면 이는 더이상 문제가 아니다.

문인의 결단기는 더이상 온대나 없고, 학우들은 한충현 출범식장으로 예전과 다름없이 계속 모여들 것이기 때문이다. 출범식은 각 학교, 각 지역별의 출범식을 통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각 학교 대동계를 치른 분례역량에 한한 대동계를 펼쳐보일 것이다. 투쟁에서 출범식을 기점으로 반이, 반전 경우도 평화해한다. 이렇듯 1백년의 생활, 학로, 투쟁은 한충현 출범식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바로 투쟁역사 속에서 단련된 단련한 한충현의 힘이다. 누가 감히 한충현의 위기를 말하랴. <이충선>

연이은 집회, 미국반대 드높아

5·18 민주화운동 14주기와 반미주년을 맞아 지난 한 주 거리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구호소리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 14일(토)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울총련) 소속 학생들과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선봉대 학생들이 한양대에서 '간강조조 전쟁' 등 미국반대의 광주문예제전을 위한 한총련집회를 갖고 연희동 전적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5월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연희동 집회에서는 2백50여명의 선봉대와 1천5백여명의 전경이 대치해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17일(화)에는 민주주의의존운동 전국연합 주위의 5·18 정신계승 및 전성가담 해방차 치범을 위한 집회가 2시 광복문에서 있는 후 오

21일 서울·평양·동경서 범청학련 집회

본교생 2백명, 선전전 수행

후 7시 서촌동 소속 1천 5백여명의 학생들이 연희동으로 이동해, 미리 연희동 전적투쟁을 벌이고 있던 서촌동 서부지구총학생회연합 학생 5백여명과 함께 연희동 교차로에서 전경과 대치해 몸싸움을 벌이며 '한살자를 치단하여 광주열사 한을 풀자' '광주학살 전적 주범 미국을 물려버리자'의 구호를 외쳤다.

반미의 날을 맞아 남북한의 청년학생이 함께 '한반도 간강조조의 주범인 미국반대의 결의를 모으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집회가 서울에서는 21일 시립대에서 열려

반미주간 동안의 투쟁들을 총화하고 이후 한충현 출범식을 비롯한 투쟁들을 일차게 벌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 범청학련 집회는 북에서는 평양, 해외에서는 동경에서 각각 진행됐다. 집회 이를 전인 19일, 경찰은 제2기 한충현 의장 김현준(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 위원장 양동훈(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에게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청학련 활동들을 이유로 사전수속명령을 발부했다. 김현준의장이 참석하지 못

한 상태로 집회가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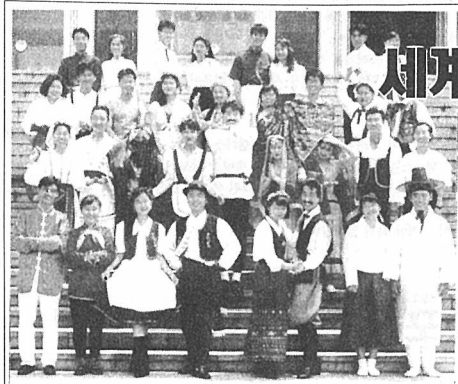
양동훈 조통위 위원장에 의해 남북 통일위원회의 주된 내용은 스무한 미군과 해방기 한수 및 평화협정 체결 △트럼프리드 후원과 푸기노이저지 △북핵문제 원만타결 △민족대단결 실현 △국보보존을 천명하고 한충현·범청학련을 강화하자 등이

다. 이날 집회에는 본교생 2백여명이 참가해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대학로에서 서울캠퍼스 학생들은 청량로에서 선전전을 수행했다. 지난 한 주 투쟁의 열기는 금주 말에 있을 한충현출범식으로 이어져 갖가지 정치비타리 문제등으로 수세에 몰린 정권을 더욱 수세로 몰고갈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세계가 한자리에

인류평화와 남북화해를 위한 '94 세계민속예술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어린이 대공원에서는 20개국의 음식, 춤, 노래 등의 전시회가 진행됐다. 22일(일)에는 건국대에서 전시품에 대한 판매가 진행됐다. <사천부>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그날

—'94 세계민속예술축전

5월 25일(수)·26일(목) 본행사(첫번째)

(민들레예술회관)

5월 31일(화)·6월 1일(수) 본행사(두번째)

(서울교육문화회관)

'94 세계민속예술축전 준비위원회

빛나는 청춘의 기상 '94 오월 대동제

5월23일(월)	5월24일(화)	5월25일(수)	5월26일(목)
□오후 1시 민족전 천제 (중산도)	□오후 3시 광복 공전(민족 극예술회)	□오후 4시 호남리도관곳 (화도)	□오후 4시 동일대 한마 당
□오후 5시 의국인 교수 노 래자랑 한마당 (의암사)	□오후 4시 학술경 아중마 노래자랑	□오후 7시 작은 의대전지 -기쁜우리 젊은 날	□오후 8시 패박식
□오후 7시 개막식	□오후 6시 백박경기공연	□오후 10시 대동제(화도)	
□오후 8시 새물결 경기공연			

솔직한 만남 함께 갖는 희망 제 2대 총학생회

실용적 노선 통한 지역적 강대국 추구

3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남수중

〈대학원 이주지역학과 2학기〉

탈냉전시기 중국의 세계 질서 인식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인한 냉전체제의 해체는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질서인식'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세계질서인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는 세계체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는 양극구조에서 다극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나 이것이 자리잡히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불안정한 불안정요인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소련의 해체에 의한 양극체제의 와해는 국제체제상의 균형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양극체제의 해체에 따라 다른 한편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패권이 상당부분 축소되었으나 당분간은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어 불안정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것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패권주의적 국가가 온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현재 중국의 주요모순에 대한 인식이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모순구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일본과 미국의 무역마찰이 커지고 있고 NATO의 역할을 둘러싼 미국과 EC국가들간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등 서서(西)간의 모순이 점차로 격화되고 있으며 남북간의 모순이 향후 세계질서에서 가장 중시하게 되었다. 두말할 것 없이 중국은, 남북간의 우호의 강도는 중국 자신의 입장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의 남남간의 우호의 강도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외에 남남(南南) 국가들 사이의 적대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여러 모순들의 경합을 '동서남북'모순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런 인식하에서 중국은 근본적으로 세계체제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 이유에

탈냉전시기 중국의 동북아 전략

중국은 체제변화를 지향한 패권주의국 즉 미국의 정책은 현실적으로 인권, 민주, 자유를 무기로서 다국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중국의 외교노선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적 대안은 어느 쪽으로 다른 주요세력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이 새로운 세계질서기 마일-EIC의 3국 체제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다극체제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이변에는 중국의 이런 '외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외교노선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실용주의 외교노선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즉 중국은 외교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이런 비평위에 중국은 동북아에서 크게 세가지 목표를 기본축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 예상된다. 첫째, 중국은 대외외교의 안정의 확보를 우선시한다. 둘째, 세력이 재편되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현대화를 위해 대외경제협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외, 대일관계도 이 세가지 기본목표를 축으로 동북아정세의 변동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미관계는 2천년 하계올림픽 개최 실패가 미국의 조직적 반발에 의한 것으로 보는 중국과 '최대국 대우'를 통해 대중국 압력을 가중시킨 미국의 인식으로 악화되어 왔다. 1994년 6월로 예정된 최대국 대우 시한 연장은 중미간의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은 일본에 대해 중국의 강경입장이나 패권전쟁 당시 일본의 해외침략을 보는 단강한 시각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협력과 영토 및 안보에 대한 정책상의 구분은 명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에서 일본의 패권주의화를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선린우호를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해군력이나 경제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은 '탈냉전 시기'의 다극화 추세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대외외교적 안정을 추구하리라고 여겨진다. 동시에 동북아에서 중국은 위의 두가지를

포함하여 기존의 '지역적 강대국'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것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정세에서 두드러진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자극을 자제하여 한반도에서의 안정된 질서를 구축함과 동시에 과거의 기록권을 유지하는 정책적 대응을 시도한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지역경제협력의 형성을 비라는 중국은 러시아의 상대적 지위하향, 동북아에서 '지역적 균형자'를 차지하는 미국의 안보전략,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 국제적 고립을 피

회조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북한에 대한 선풍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미관계, 북-일관계의 중재자로 부상했다. 그러므로 북한을 매개로 하고 동시에 한중관계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도록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대응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며, 안보의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도 북한의 역할을 감소시킨다. 중국의 기본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에 있지만 중국은 NPT의 명분규정상 '체약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탈퇴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들어 북한의 탈퇴가 적법한 것임을 주장한다. 동양인 맥락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중국은 어떠한 형태의 대북정책 조치도 반대한다. 그리고 중국은 정치적 방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주장한다. 한편으로 안보의 최강정당과 안보의 결의안에서 보여지듯이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는 서방국가들의 의사가 중국이라는 걸림돌에 의해 유보되었던 것이다.

한반도로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불투명하게 되어 안정된 국제정세를 바라보고 있다.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주변국의 해가될 도미노를 거두어 줄 수도 있고, 이것이 동북아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인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지지하는 배경에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자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통한 현상유지를 바라는 중국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태도를 통해 중국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한미간 체결한 조약 · 협정

③ 전시 접수국

지원 협정



전시 접수국 지원협정(War-time Host National Support Agreement : WHINS)은 제1조에서 "전시 접수국 지원은 위기, 적대행위, 전쟁시 한국이 미국의 접수·이동 및 지식을 위해 제공되는 군사 및 민간자원과 자원을 뜻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평시의 지원을 포괄하는 WHINS는 "전시"에 중원국의 신속한 배치와 운용에 필요한 각종 시설(항만, 도로, 상수도 등)과 물자(유류, 탄약 등) 수송, 노숙지원 등에 관한 현지국들의 지원내용과 규모, 비용담당의 원칙, 이를 통한 평상시의 준비와 지원(훈련)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WHINS는 85년 5월 제17차 한미안보회담에서 미국에 의해 체결되어 91년에 재검토되었다.

이 협정도 정세에서부터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는지, 또 그에 대해 남한은 왜 그것을 지원해야 하는지 납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WHINS는 다음과 같은 '외환요소'들을 갖고 있다.

협정 제2조는 "미국은 유사시 한미결사 및 연합사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중원부대 제공을 계획한다... 한국은 미국에 재원을 제공하여 민간지원은 국가안보적 선포후에 사용하며 예측불가능한 지원은 한국의 자위자신 범위에서, 미국이 대체할 때까지 계속한다"고 되어 있다. 즉 미국 중원군 과전시기와 규모를 명시하지

만영구적 미군기지 위한 지원



않고, 지원부대의 목적도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주권적인 판단에 기초해 무제한적인 병력보충을 가능하게 하며 남한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제약받을 수 없게 된다. '예측불가능한 지원'을 미국이 대체할 때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은 '한미결사 작전계획 5027'에 있는 취의의 상황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협정이 전시가 아닌 위기, 적대행위 상황에서도 적용된다. 미 미군의 군사시설 폭을 확대시켰다. 80년 정세협정과 같은 정세에 반대하는 민중의 항쟁이 거세질 때 미군이 개입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전시지원 연설 및 시련을 실시한다"고 명시한 제2조와 이 협정이 "기존협정과 관련된 비용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 제8 조는 남한에서 훈련할 때만 한미 결사결정되는 주한미군 지원비와는 별도로 추가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협정은 발표기만도 없는 "무기한" 적용되는 협정이다.

WHINS의 본질을 남한을 '반영구적 미군기지'로 바꾸면서 막대한 지원을 감수하는 협정으로 보는 것도 이해된다.

대확장된 지구교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고, 남북간의 지체적 준비비한 시기 노태우 정권은 지구교류-포기하는 행위를 스스로 구원하는 이중적인 격변을 보였던 것이다.

〈정지혜 기자〉

글·심·순·서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1.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2.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3.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4. 현시기 북한사회주의의 생존전략과 남북통일
5. 총괄: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장래

기술의 현대 세계의 현대

현대프린터 제노비아 6410

컴퓨터 만능이 중요한 프린터 선택 - 일크레프 프린터라고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인쇄속도, 선명도, 호환성, 편의성, 경제성까지 하나하나 비교하고 결정하십시오. 이제, 프린터도 현대 제노비아가 앞서갑니다.

현대 제노비아, 128노출·450CPS로 일크레프 프린터의 하이스피드 시대를 연다!

- 기본 일크레프 2배이상 빠른 고속인쇄! 128노출과 H/W의 한글출력 450CPS의 고속인쇄를 실현, 동급 일크레프보다 2배이상 빨라졌습니다.
- 레이저급의 뛰어난 고선명 해상도! 원단 비탈방식으로 레이저급 300DPI의 해상도를 구현, 문서, 그래픽을 깨끗하고 정밀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어떤 S/W도 소하하는 완벽한 호환성! KS, KSSM, HP Deskjet 등의 애플리케이션 내장으로 윈도우로써, 그래픽, 스프레드시트, CAD 등 어떤 작업에도 적합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의 선배로 한발의 키조작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모두 키조작 한발만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의 변경도 키조작만으로 가능합니다. (국내최초)
- 레이저 방식의 56KB 대용량 인력 범위! 호스트에서 원상대로 데이터베이스의 56KB 대용량 버퍼에 저장된 후 인쇄, 호스트의 운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자동·수동으로, OHP 필름까지 다양한 용지 지원! 최대 100여개의 자동날것용종이 A4, 분무 또는 OHP 필름까지 다양한 용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능만큼 우아한 경제성! 합리적인 가격뿐 아니라, 일크레프의 정밀, 유지비가 거의 필요없는 경제형 프린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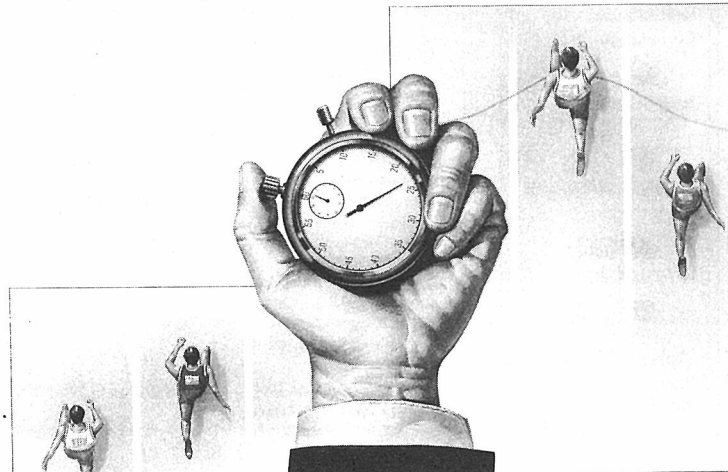
현대프린터 전문점을 모집합니다.
(문의처) 398-4423, 4

현대전자

유명업부
서울시 중구 적성동 66 (현제동 B/D 12층)
TEL: 398-4423-5

HYUNDAI

A4용지를 23초만에-
프린트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72인치형 모니터: 72인치형 모니터 719-6199/7200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적성동 66-4
전화: 398-4423, 4424, 2000
대리점: 대전광역시 중구 대동로 53-30
전화: 751-034, 955-2000
대구광역시 중구 대동로 13-25
전화: 825-872, 824-2000
광주광역시 중구 대동로 14-12
전화: 365-205, 680-2000
부산광역시 중구 대동로 13-22
전화: 81-381



□광주항쟁 기념 창간판소리 '오월광주'

“허허 이제 웬일이여 광주시민이 무슨 죄라”

광주민주항쟁 14주년을 맞아 이를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문화제가 처음으로 지난 18일(수)부터 22일(일)까지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광주시회를 여는 모임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창간판소리 ‘오월광주’ (118-192), 심리극 ‘도란도란’ (20-22일) 두 작품을 통해 광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무대로 꾸며졌다.

‘오월광주’는 임진택 (45세) 직접 사설로 쓰고 장단과 가락을 붙인 서사적 판소리 한마당이다. 이번 판소리는 기존의 창작판소리의 형식과는 사뭇달라 눈길을 모았다.

소리판대 (임진택)는 두루마기 대신 일련을 입고 무대에는 방종 대신 광주항쟁 현장을 그린 걸개그림이 설치되었다.

‘첫째는 판대이오 둘째, 셋째가 판대와 교수요, 차 주립은 한민 같이 합시다. 열우, 그렇지, 그래, 어, 그런데 비장한 내용이다 방장맞게 하면 관란 하오. 이시것소?’ 하며 소리꾼의 한마당은 펼쳐졌다. 틀거리는 79년 대통령 탄압 사건에서 시작

5월 18일 개포로 확대 조치, 광주부대의 민행, 시민들의 항거, 해방 광주의 나날들, 그리고 항쟁 지도부의 결성과 마지막 도청사주에 이르기까지의 갖가지 갈등과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는 광주민주항쟁 열흘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장엄한 서사적 기록이 중심이 됐다.

반어와 긴박감 등이 적절히 배치된 가운데 소리판대 임진택의 절룩한 목소리가 ‘민주연구회’의 국악 ‘연희국대’ 발판의 곳 그리고 ‘천지인’ ‘노래광장’의 노래와 어울려졌다. 영상과 노래를 삽입하는 등 각 장면을 형상화해 주역한 이번 판소리는 극적인 공감대를 고조시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시대적 상황으로 그동안 제작하지 못했던 80년 광주민주항쟁의 이야기를 이제서야 털어놓았다는 임진택씨는 “뒤늦게나마 정부당국이 광주시민의 명예회복과 함께 민주운동으로 규정할 것을 진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엄한 역사적 평가만이 오월의 열망들에 대한 찬양은 자들의 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수미 기자>

□가극 ‘금강’을 위한 워킹스 ‘우리리 우리노래’

‘우리다운’ 음악극

음악, 춤,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민족 종합예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아이들이 죽어간대, 광주에 하나 하나 죽어간대”

무명꽃을 잃은 조선 아낙의 애절한 창으로 무대를 열민족극 ‘금강’.

지난 17일(화)과 18일(수) 양일에 걸쳐 가극 ‘금강’을 위한 워킹스 ‘우리리 우리노래’ 공연이 인제아트홀에서 열렸다. 민족의 정서, 민족의 문화에 바탕을 둔 우리 음악극의 올바른 정제성을 찾아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한국적 오케스트라, 노래, 창작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로 공연되었던 작품들을 잇달아 무대에 올리는 실험적 성격을 띤 공연이다. 즉 한국적 음악극 만들기의 파고를 그대로 담아놓고 관례적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

민중 제미와 가버운 소재의 토마스 그스트레드의 오케스트라 ‘세노르 발루스’를 공연한 뒤 민중 오케스트라를 가극단 ‘금강’ 대표 문호근씨와 관례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세 봉건사회와 헤세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세노르 발루스’는 작품의 주인공 ‘셀리’와 ‘레온’의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민중 오케스트라가 사정없이 감동적이지

는 절과 정서와 문화의 이질감에서 오는 극적갈등의 강소.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음악극연구소가 지난 88년 ‘한국적 음악극’이라는 명칭보다는 아예 ‘우리리 우리노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노동자계급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예술적 표현으로 정서상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적 관과 노래양식을 통해 그 속에서 드라마를 설명해 낼 수 있는 음악극을 만들었다. 우리리 우리노래의 가창성을 높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지마로 ‘구로동 연가’ 이후 6년간 앞에서 보였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구한 결과물로서 민족극 ‘금강’ 제1막-5장 ‘하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무대에 올린다. 가극 ‘금강’은 고 신동원씨의 서사시 ‘금강’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4·19혁명을 통해 감옥생활을 보았던 시인은 우리 민족의 평화의 시대로부터 어딘가의 시대를 거쳐 극복의 시대로서 감옥생활을 묘사했고, 다시 미래의 시대를 약속하고 있다. 가극 ‘금강’은 서사시에서 음악극으로 변화

□공연이야기-투병가금 마련 ‘우리들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가득찬 한마당

지난 16일(월) 서울 캠퍼스 노년극단은 장엄한 사랑의 열매가 피는 무대를 꾸민다. 최규선 동문(동양, 대학이 83) 투병가금 마련 노래공연 ‘우리들의 사랑으로’에 최동문의 패용을 비는 1천여명의 사랑과 정성이 모아졌다.

‘형과 함께 가타타타 노래하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이렇 민중의 삶과 함께 하러왔던 형의 넉넉한 모습을 하루 빨리 병석이 아닌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며 88년 총학생회장 있었던 함철성 동문(법, 법학 85)은 밝혔다.

술리도 ‘내가 아는 구슬이 형은 최동문의 평소 활기찬 모습이 상영됐다. 이날 노년극단에 모인 선. 후배들은 영상과 노래 사회변혁 운동의 길을 가기에 절었던 최동문을 기억하며 앞으로 도전하길 그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

최동문이 최원익이도 한 민족극단 ‘열매’의 사자들과 함께 무대로 나왔다. 이날 공연은 최동문의 대표로 혼자서 왔다 마려 열을 직접 빌려온 김지연 동문(정치, 정치으로 패용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지리에 왔다 ‘바라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를 권리와 함께 불러 호응을 받았다. 또 사자단의 춤과 운동하고 있는 정대준씨는 본교 도서관의 인양함을 위해 최동문은 너무도 시급함을 세상 화인사주기도 했다.

열매는 모토처럼 민중과 함께 하다 이상정양에 걸린 신체의 패용을 비는 학생들과 이장자 강는 조마를 잡고, 온, 최동문의 삶을 기억하는 졸업생들이 어우러져 최동문의 따뜻한 가슴을 확인하는 희망찬 시간이 되었다.

‘빛이여 어서 오게나... 코페르 페인 주름살 그대로... 이 어둠 건너 우리를 부활해 하라!’ 마지막으로 출연한 관객과 함께 ‘지금은 우리가 한나서’를 불러 최동문이 누워있는 병석에까지 완쾌의 희망을 보였다.

문화 응답

중국역대사기선집 (전 4권)
-기세준·신영복 편역

기원전 1천년경에 나온 사경의 ‘노동’에서 근대의 ‘해방’까지 3천년에 걸친 중국 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사선집이다.

총 1천3백99권을 뽑아 수록한 이 책은 사가를 노동과 생산의 부업이 없는 부유층의 음탕생활로 보려는 편견을 지니는 문화행위로서 사가의 위치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사대의 작가를 대한 해설과 현대 감각의 새로운 번역으로 누구나 쉽게 한시의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그 해 겨울나무

지난 82년 ‘물들의 노래’를 발표한 후 노년극단이 오랜 침묵을 깨고 함박웃음 ‘그 해 겨울나무’를 선보인다.

박노해씨의 시에 곡을 붙인 ‘그 해 겨울나무’를 중심으로 교육문제, 노동, 길 따라 돌아간다. 물결만 농우를 조망한 ‘첫가’ 1여까지 현대의 ‘하루’ 인간의 삶을 지명하는 꿈을 노래한 ‘돈키호테의 꿈’ 등 10곡이 담겨있다.

클래식, 아카펠라, 발라드, 랩과 같은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도입하여 실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어 다른 음악과는 다른 신선한 묘미를 안겨줄 것이다.

(대우연방·3천8백원)

목에는 강산 가슴에
금계 수놓으며
-문익환 지음



“당신은 강요마다 피수가 하나도 없이 배기가 울려오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고 꿈꾸셨지요”(봄길 박용길의 발문)

부인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를 중심으로 민족통일과 남북 이야기, 한국사회와 민주화, 우리들과 문화, 예술, 종교 등에 대한 문목사의 깊은 성찰이 담겨있다.

분단된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것이다.

(사계절·5천5백원)

윤여길 개인 회화전

경전단체 회화전에 죽을과 살을 인간본질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룬 윤여길 화가 윤여길 (38세)가 31일 (화)까지 나무회관에서 두번째 개인전을 연다.

출품작들은 기존 회화와는 달리 치밀하고 정교한 선들로 구성된 판화의 맛을 살리면서도 그만의 독특한 문법을 전한다.

문의: 나무회관 (723-3864)

북누리 말글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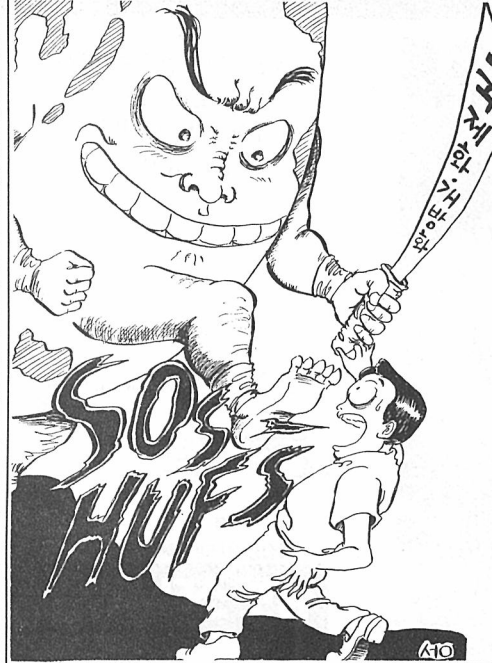


<10> 이츠립다

1. 보거나 듣거나 건디기 어려울 정도로 거북하다. 인내가 없었어! 그래서 무언을 당하기만 참으로 아츠러운 일이었다.
2. (소리) 신경을 몹시 자극할 정도로 듣기 싫고 날카롭다.

누구나 기가끼로 올라오는 지 사다리의 배려지리는 것은 소리가 이츠립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거아와왔다. 이츠고 소리없이 기가끼한 분이 일었다.

-소설 ‘나의 동무들’ 중-
<동일함이 일어난 거레모일>



개교 40주년 기념 한국외국어대학교 종합학술제

준비위원 및 참가자 모집

일시: 5월 23일(월)~30일(월)
대상: 개인-외대학부생 전체
단제-각 과 학회 및 학술동아리
접수: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2층
개교40주년 기념 사업회

TEL: 961-4458

개교 40주년 기념사업회

기/념/음/반 외대를 대표하는 젊은 음악인과 동아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자/유열, 이정열과 해무리, 이신, 천치인, 새물결, 청년, 백재길, 외인부대, 맥박 Five Voices,
제작·기획/한국외국어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사업회
후원/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총동문회
판매처/이문: 도서관 지하문구점
정문앞 레코점점 ‘멜로디’
용인: 학생회관 매점
승차장 매점

* 이 음반은 외대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되었으며 외대생과 동문선배님들에게만 판매됩니다.
* 판매수익금의 일부는 ‘외대의 날’ 행사 준비금으로 쓰입니다.
* 5월 26일(목) 출시 예정

4364

